



투이가 마을 의회를 이끄는 동안에, 사람들은 풍족하지 못한 수확량과 부족한 물고기에 대해서 불평했다. 우려하는 대화가 팔레를 가득 채웠다. “더 많은 수확물이 까맣게 변하고 있어요.” 한 마을 사람이 말했다.

“우리는 충분한 식량이 없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말했다.

“그건 섬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이 말했다.

마을 사람들의 불안해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비판이 거세졌고 사람들은 모두 동시에 말하기 시작했다.

그들을 진정시키고 질서를 다시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려고 하면서, 투이가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새로운 발을 팔 거예요; 우리는—”

갑자기, 모아나가 불쑥 들어왔다. “우리는 어둠을 멈추고 우리의 섬을 구할 수 있어요!” 그녀가 외쳤다. “테피티의 심장은 진짜예요.”

모두 말하는 것을 멈추었고, 어색한 침묵이 감돌았다. 그들은 모두 모아나를 마치 미쳤다는 듯이 쳐다보았다.

“선박들, 큰 카누가 있는 동굴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들을 가지고, 마우이를 찾아서, 그가 심장을 되돌려놓도록 할 수 있어요.” 모아나가 들떠서, 계속 말했다. 그녀는 투이에게 심장을 들어 보였다. “우리는 여행자였어요; 우

리는 다시 여행할 수 있어요.”

마을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초조해하며 그의 반응을 기다리며, 투이를 보았다. 한마디 말도 없이, 그는 모아나를 팔레 밖으로 끌어냈다.

“아빠가 저에게 우리 부족 사람들을 도우라고 했잖아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우리 사람들을 도울 방법이에요!” 모아나가 말했다.

투이는 그녀를 지나쳐 걸어가며, 횃불을 집었다. “난 그 배들을 오래전에 불태워 버렸어야만 했어.”

“뭐라고요? 안 돼요!” 모아나가 말하며, 투이의 팔을 잡아당겼다. “우리는 마우이를 찾아야만 해요. 우리는 심장을 되돌려놓아야만 한다고요!”

투이는 그녀의 손에서 심장을 잡아챘다. “심장 따위는 없어! 이걸 그저 돌 메이일 뿐이야!” 그가 소리치면서, 그것을 덩불 속에 던졌다.

“안 돼!” 모아나가 허둥거리면서, 심장을 찾았다. 그녀는 그것을 높이 자란 풀 속에서 찾았고 자신의 손에 꼭 쥐었지만, 그때 땅에 놓인 다른 무언가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탈라 할머니의 지팡이였다. 모아나는 그것을 집어 들며, 걱정했다. “할머니...”

저 멀리서 소라 껍데기의 요란한 소리가 울리면서 한 전사가 침통한 표정을 지은 채 급히 달려왔다. “족장님.” 그가 말했다. “족장님의 어머니입니다!”

모아나는 할 수 있는 한 빨리 탈라 할머니의 팔레로 달려갔다. 그녀는 오두막 바깥에 원을 그린 채 에워싼 마을 사람들의 무리 사이를 지나 나아갔다. 안에서, 모아나는 탈라 할머니가 등을 대고 누운 채, 거의 죽은 것처럼 있는 것을 보았다. 시나가 그녀의 곁에 앉아 있었다. 투이가 황급히 안으로 들어왔고, 그와 모아나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주고받았다.

“우리는 그녀를 바닷가 근처에서 발견했어요.” 전사가 말했다.

“무슨 조치를 취할 수 있나?” 투이가 물었다.

그가 전사에게 말하는 것을 지켜보며, 모아나가 천천히 그들의 대화를 엿들으려고 더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녀는 한 손이 그녀를 부드럽게 만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돌아서자 탈라 할머니가 그녀에게 손을 뻗어 무언가를 속삭이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모아나는 가까이 몸을 숙여서, 자신의 귀를 탈라 할머니의 입 옆으로 갖다 대었다.

“가거라.” 탈라 할머니가 속삭였다.

“지금은 안 돼요, 전 그럴 수 없어요.” 모아나가 말했다.

“넌 해야만 해.” 탈라 할머니의 목소리를 약하고 거칠게 들렸다. “바다가 너를 선택했어. 낚싯바늘을 따라가—”

“할머니—”

“그리고 네가 마우이를 찾으면, 그의 귀를 붙잡고, 이렇게 말하렴, ‘난 모두 누이의 모아나다.... 넌 내 배에 올라, 바다를 향해해서, 테피티의 심장을 돌려줄 것이다.’”

“전 할머니를 떠날 수 없어요.”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차오르며 모아나가 말했다.

“네가 갈 수 있는 곳이라면 내가 너와 함께 하지 못하는 곳이 없을 거란다. 너는 길을 찾게 될 거야, 모아나.” 탈라 할머니가 말하며, 그녀에게 코를 뺏대면서 하는 인사를 해 주었다. “너는 너만의 길을 찾게 될 거란다....”

치유사가 급히 안으로 들어오자, 탈라 할머니는 그녀의 조개껍데기 목걸이를 모아나의 손에 쥐여 주었고 속삭였다. “가거라.”

모아나는 목걸이를 힐끗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바닷길잡기 여행자의 동굴에서 같은 썬라이즈 조개껍데기(sunrise shell) 목걸이를 한 첫 번째 조상을 본 것을 기억했다. 그는 그것을 젊은 바닷길잡기 여행자의 목에 돌려 주었는데, 이 사람은 해, 바람, 달, 별, 그리고 해류를 이용해 방향을 읽고, 새로운 섬들을 찾아 항해하는 자였다.

그녀는 그것을 자신의 손으로 꼭 감쌌고 팔레에서 다시 나왔다. 바깥에서, 그녀는 어두운 밤하늘과 대조적으로 별이 반짝이는 것을 올려다보았고 그것을 훑어보며, 마우이의 낚싯바늘 별자리를 찾았다. 그녀는 그것을 찾았고,

다른 생각조차 하지 않고, 모아나는 테피티의 심장을 안전하게 탈라 할머니의 목걸이 안에 넣었고 그것을 자신의 목에 둘렀다. 그녀는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갈 것이었다.

모아나는 자신의 팔레로 서둘러 왔고 물품들을 모았다. 시나가 나타났고 그녀에게 그녀의 여행에 필요한 더 많은 물건과 함께 밧줄을 건네면서 모아나를 깜짝 놀라게 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의 생각을 읽으려고 했다. 그러더니 시나가 옆으로 비켜서며, 모아나가 지나갈 수 있게 했다.

모아나는 마을을 급히 벗어나며, 까망게 시든 보리수나무를 지나쳤고, 그것의 죽은 잎들이 그녀의 발밑에서 바스락거렸다. 그녀는 비밀 동굴로 갔고 카누들 가운데 한 척에 올라갔다.

배를 밀어 멀어지자, 그녀는 배를 출발시켰고 큰 폭포 사이로 노를 저어 석호로 나갔다.

그녀가 향해해 나가면서, 그녀는 자신의 마을을 향해 돌아섰고 탈라 할머니의 팔레에서 불이 커지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그것이 할머니가 돌아가셨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녀는 큰 슬픔을 느꼈다. 갑자기 은은한 빛이 해변에서 나타나,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것은 그녀를 향해 바다를 지나 쏜살같이 왔다. 그것이 빠르게 배 아래로 지나가자, 그녀는 그것이 유령 같은 가오리라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것은 계속해서 바깥 바다로 향해서 갔고, 암초들을 뚫고 지나가며, 모아나가 따라갈 수 있는 안전한 길을 밝혔다.

위에서 달빛을 받고 아래에서는 가오리가 빛을 내니까, 모아나는 그녀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단단히 마음먹으며, 그녀는 암초를 향해서 노를 저었고, 파도가 그녀를 향해 밀려오자, 그녀는 그녀의 돛을 펼쳐, 그것과 맞설 준비를 했다. 그녀는 거대한 물결 너머로 카누를 이끌며, 파도를 탔고, 그것이 부서지면서, 모아나는 암초 너머로 쏘아 올려졌다!

그녀는 모두누이 섬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고 그녀의 집이 저 멀리에서 사

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시선을 외해로 돌리자, 그녀는 흥분이 몰려 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별을 올려다보았고 마우이의 뉘싯바늘 별자리에 집중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목걸이 주위를 감싸면서, 그녀는 반신반인을 찾기 위해 길을 나섰다.